

상주지역 배과원 병해충 방제 실태

김종거, 서상재¹, 정철의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¹상주대학교 원예학과

상주지역 배과원의 해충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관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조사로써, 2002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배과원 방제 대상 주요해충으로는 가루깍지벌레(3.3회), 꼬마배나무이(2.9회), 애모무늬잎말이나방(2.7회), 점박이응애(2.5회), 콩가루벌레(2.1회) 순이었다. 해충의 방제를 위한 주요 약제 선택은 각각 fenitrothion, buprofezinamitraz, buprofezinfruthiocarb (이하 가루깍지벌레), imidacloprid, thiamethoxam (꼬마배나무이), chlorpyrifos, carbaryl, deltamethrin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zocyclotin, etoxazole, tebufenpyrad (점박이응애), fenitrothion, dichlorvos, imidacloprid, azinphos-methyl 등이었다. 점박이응애의 경우 저항성이 문제되는 농가에서는 acequinocyl, abamectin 등의 약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조사 대상 농가에서 살충제는 10.9회, 살비제는 2.5회이었다. 우리나라 배주산지인 전남 나주, 충남 천안 지방의 해충 발생 및 방제 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상주지방 배과원 해충 방제체계 개발방향을 제시한다.